

NEWS 방송계 동향

지상파방송 3사, 미국에 OTT 현지법인 설립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40억 원씩 총 120억 원의 자본금으로 최근 미국에 코리아콘텐츠플랫폼(KCP)이라는 법인을 유한회사(LLC) 형태로 설립했다. KCP는 한류 콘텐츠를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며 코코와(KOCOWA · KOREA COntents WAve)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된다. KCP는 올해 상반기 서비스를 통해 7월 유료로 상용화를 계획 중이며, 미국을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북미 지역 서비스를 통해 KCP는 전 세계 방송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을 통해 경쟁력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CBS

최영학 CBS 기술연구소장 한국방송기술대상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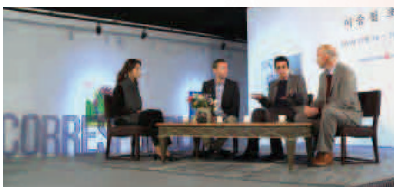


최영학 CBS 기술연구소장이 2016 한국방송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최영학 소장은 공중파라디오와 인터넷 기반의 스트리밍라디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라디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방송사가 연대하여 하이브리드 라디오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라디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수상은 CBS에서는 물론, 라디오 아이템으로는 최초의 대상 수상이라 더 큰 의미가 더해졌다.

아리랑국제방송

토론 프로그램 'Foreign Correspondents'

- 외신 기자들이 본 탄핵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가결된 탄핵소추안! 외신기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7일 토요일 오전 7시 방영된 '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이란 Press TV의 프랭크 스미스,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기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들이 시민들의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반응한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면서 탄핵이 가결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외신 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뉴스 토론 프로그램 '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이후의 정국에 대해 이야기한다.

SBS

'젊은 기술인의 밤' 행사 개최



최근 몇 년간, SBS 신입&경력직 기술 입사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하였지만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다 보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20, 30대 젊은 기술인의 화합과 기술조직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자 맡은 업무의 이슈와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보고 서로 융화할 수 있는 기술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ISU 쇼트트랙 월드컵' UHD 생중계 방송



SBS는 지난 11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UHD 방송 신규 허가 이후, UHD 표준기술을 적용한 실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2월 15일 세계 최초로 차세대 UHD 시험방송을 성공적으로 개시하였으며 17~18일 국내 최초로 도입한 UHD 중계차를 활용하여 'ISU 쇼트트랙 월드컵'을 UHD로 생중계 방송하였다.

KT스카이라이프

KT스카이라이프 프리미엄 고속버스 위성방송 론칭!



KT스카이라이프는 개인 좌석별 모니터로 위성방송 서비스를 터치스크린으로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서비스를 론칭하였다. 뉴스,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 206개 방송에 31개 오디오 채널도 시청 가능하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광주구간에서 모두 27대를 운행하며 기존 고속버스와는 다르게 이동체 위성안테나를 2대 설치해 수신 안정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MBC

MBC 기술인협회 송년회 개최



2016년도 MBC 기술인협회 송년회가 11월 30일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렸다. 바쁜 업무 중에도 100여 명의 협회원이 참석하여 돈

독한 선·후배 간의 정을 확인하였고, 전문MC를 섭외하여 다양한 게임과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어느 해보다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또한 방송기술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협회원에게 수여하는 기술인협회상 시상식도 열려 대상 1명, 우수상 5명, 특별상 2명이 수상하였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CCBN 2017 참관 이 부상으로 제공되었다.

OBS

‘사랑의 리모델링-Aging In Place 1호점’ 제주에서 오픈



OBS의 연간 프로젝트 ‘사랑의 리모델링-Aging In Place 1호점’이 제주에서 오픈했다. 이 프로젝트는 OBS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소외계층에게 건강한 보금자리와 삶의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회 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40년 넘게 해녀로 활동해온 84살 이영숙 할머니 부부가 쾌적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택을 리모델링했다. OBS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복지와 구조 변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리모델링 과정을 다큐멘터리 ‘해녀의 꿈, 숨비소리’로 제작하였다.

EBS

EBS 기술인협회 2016년도 송년의 밤



지난 12월 1일 EBS 기술인협회는 2016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2016년도를 마무리하며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 보고 2017년 기술

인협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올해의 기술인으로는 라디오, 편집, 중계 분야의 총 3명이 선정되었다.

tbs

tbs 방송기술인협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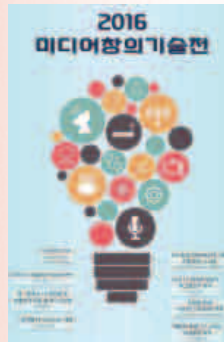


tbs 방송기술인협회는 지난 12월 9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협회 활동 내역 보고 및 내년 예산안 승인, 회칙 개정

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

KBS

2016년 미디어창의기술전 개최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멀티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방송품질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미디어창의기술전이 12월 6일 KBS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15개의 출품작이 출품되어, 8개 우수 작품들이 예심을 뚫고 본 심사를 치렀으며 대상은 제작시설부의 <모바일 TS Analyzer 개발>이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대거 참여로 분위기가 한층 뜨거웠고, 음향시연과 논문출품 등 출품작들의 다채로운 시도도 엿보였다. 이번 미디어창의기술전을 통해 보여준 열정이 있기에 빠르게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기술인들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KBS STAR HD 고화질 DMB 방송 시행

KBS가 12월 27일 5시부터 DMB ‘KBS STAR HD’ 채널을 신규 서비스한다. 지진과 기상이변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선명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이번 서비스는 HEVC 압축기술을 통해 구현되며, 최신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BBS

BBS, 백낙찬 기술인협회원 퇴직



BBS는 12월 9일 부로 백낙찬 협회원(기술부장)이 퇴직하였다. 지난 26년 동안 불교방송 기술국을 이끌어 왔던 백낙찬 협회원은 지난 12월 초 기술인 협회원들

과 송별회를 가졌다. 협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백낙찬 협회원은 퇴직 후 정보통신기술사로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예정이다.

TTA WG8027 지상파 UHD RF 정합 테스트 실무반

지상파 UHD 3단계 RF 송수신 정합 테스트 실시



지난 11월 30일 한국방송통신 14층에서는 지상파 UHD 3단계 RF 송수신 정합 테스트가 진행됐다. 지상파 UHD 본방송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테스트의 성격으로 송수신 정합에 관해 다양한 기관에서 참가하였다. 참가사로는 KBS, MBC, SBS, EBS 방송사와 SMCNS, ATBIS의 게이트웨이 담당 업체를 비롯해 송신기를 취급하는 진명통신과 ETRI, 수신기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가하였으며, JNS와 애니퓨처텍에서는 관련 분석기를 공급했다. ATSC 3.0 물리계층 최신표준 문서를 기반으로 구현된 송신부와 수신부 간 정합 테스트였기 때문에 여러 조건과 확인 사항을 위해 실험이 진행되었다. 주요 테스트 내용으로는 기준시간동기 확인, 송수신기 연결 후 영상 확인, Wall Clock 정보 송수신 확인, Bootstrap 내 재난경보비트 테스트, SFN 단일 주파수 방송망 실험실 테스트, 전송 파라미터 셋 정합 검증, 최종 테스트 결과 분석이었으며, UHD, HD 동시 2채널 전송도 진행되었다.

UHD KOREA

안테나 내장형 UHDTV,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지상파 UHD 수도권 본방송 실시와 관련해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안테나 내장형 UHDTV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UHD KOREA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20세~만69세 성인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테나 내장형 UHDTV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0.1%로 나타났다. 안테나 내장형 UHDTV 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에게 '구매의향'을 질문한 결과 86.9%가 안테나 내장형 UHDTV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13.1%(전혀 없다 0.6%, 없는 편이다 12.5%)에 그쳤다. 특히, 가전사가 추가비용, 디자인, 민원 문제 등을 이유로 UHDTV에 안테나를 내장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응답

자의 82.8%는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방식으로 실시되어 2016년 9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 기준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 할당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은 $\pm 3.09\%$ 이다.

국회 및 한국방송학회

UHD 방송 정책 세미나 개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방안

- 지상파 UHD 방송 수신 환경 및 여건 조성
-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책 마련
- 지상파 UHD 방송 제작 지원 방안 강구
- 지상파 UHD 방송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

UHD 방송 규제 완화 및 산업 지원

- UHD 방송 편성 규제 완화
- UHD 콘텐츠 제작 및 장비 세제 지원
- UHD 콘텐츠 제작관련 지원 강화 및 활성화
- UHD 방송 지원 특별법 개정

UHD 방송 활성화 기반 조성

- UHD 방송 콘텐츠 교류 확대
- UHD 방송 콘텐츠 제작 설비 및 인프라 투자
- UHD 방송 콘텐츠 재전송 기반 확보 및 정책 수립
- UHD 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8K UHD 방송서비스 도입 정책 수립 및 대응

주정민 교수의 UHD 방송 활성화 및 정책 방안

‘UHD 방송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 ‘8K UHD 방송서비스 도입 정책 수립 및 대응’ 등 UHD 방송 활성화와 방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토론자들도 여러 걱정되는 점들을 지적했으며, 미래부와 방통위의 담당자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상태로,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12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경진, 김성수, 이은권, 추혜선, 한국방송학회 공동 주최로 ‘UHD 방송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를 두고 참석한 토론자와 발제자는 긍정보다는 ‘우려’가 깊다고 전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요지이다. ‘국내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관련 문제와 대책을 내놓았다.

UHD 방송서비스의 도입 쟁점으로는 먼저 ‘UHD 콘텐츠 확보 및 편성’이다. UHD 제작에 기존 HD보다 많은 제작비가 들며, 이와 반대로 UHD 콘텐츠 판매 단가는 점차 하락할 것이라 전망이다. 또한, ‘UHD 방송 제작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가격의 제작 장비 부족으로 콘텐츠와 제반 여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정민 교수는 ‘UHD 방송을 위한 자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UHD 콘텐츠가 광고 매출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이 부분에 있어 방송사만 제작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환경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 내다봤다. 다음으로는 ‘UHD 수신기 보급 및 시청자 피해 구제’로 ATSC 3.0을 탑재한 UHDTV가 2월쯤에 출시되며, 기존 DVB-T2 방식의 TV를 보유 중인 시청자는 별도의 컨버터를 구매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해야 되며, UHD 본방송을 시작하더라도 이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는 극히 제한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 문제로는 아직 ATSC 3.0의 표준이 미완료되었고, 2017년 1/4분기에는 표준이 완료될 예정이기에 테스트의 미흡함이 존재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 교수는 ‘내장형 TV 안테나와 직접수신 환경 구축’으로 시청자의 편리와 직접수신을 위해서 UHDTV에 내장형 안테나의 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제대로 된 공시청 환경도 구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장형 안테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수신, 관련 정책 및 인프라의 부족 등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이 토론회의 주된 흐름이었다. 주 교수는 ‘UHD 방송 지원 특별법 제정’이 UHD 생태계를 만드는데 있어 제도화가 되어야 하고,